

김맹녕의 명문 골프장 탐방 | 엘리시안 강촌 컨트리클럽

북한강·단풍山 보며 굿샷…이곳이 '힐링 이상향'

산·계곡·호수 품고 사계절 매력 뽐내
가을 맞이한 그린은 그야말로 장관
아기자기 코스로 비경 즐기며 라운딩
콘도·스키장·수영장 갖춘 종합휴양지



고 임상하 디자이너가 설계한 엘리시안 강촌컨트리클럽의 전경. 춘천시 북한강변 굴봉산의 아름다운 산악지형에 자리한 이곳은 뛰어난 코스관리, 명품 페어웨이, 서비스 품질로 골퍼들의 입소문을 통해 진가를 인정받고 있다. 사진제공 | 엘리시안 강촌 CC



골프장으로 둘러싸인 콘도미니엄



겨울 '핫플레이스' 스키장

엘리시안 리조트는 GS그룹이 강원도 강촌과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사계절 종합 리조트다. 엘리시안 강촌은 콘도미니엄, 골프장, 스키장, 수영장, 휴양림을 갖추고 있으며,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레저 스포츠와 힐링을 겸할 수 있는 휴양지다. 엘리시안 제주는 세계의 리조트 거장들과 함께한 코스, 인테리어, 조경 디자인으로 더욱 유명하다.

엘리시안은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의 총애를 받는 영웅들이 들어간다는 이상향 '엘리시움(Elysium)'에서 따온 말로 '최상의 행복이 있는 지상 낙원'을 뜻한다고 한다. 엘리시안 강촌컨트리클럽은 강원도 춘천시 북한강변 굴봉산(307.2m)의 아름다운 산악 지형에 설계된 27홀로 힐, 밸리, 레이크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설계는 뉴서울CC 북코스, 신라CC, 화산CC를 설계한 고(故) 임상하 디자이너가 맡았다. 산과 계곡, 호수를 감돌면서 라운드하는 다이내믹한 코스로 정교한 샷을 요구하는 토너먼트 코스로서의 진가를 인정받은 곳이다.

사계절 내내 계절 라운드를 즐길 수 있는 변화의 절경을 품고 있는 골프장으로, 엘리시안 강촌CC만의 세심하고 완성도 높은 코스관리, 명품 페어웨이 그리고 서비스 품질은 골퍼들의 입을 통해 소문난 곳이기도 하다. 특히 골프장 입구에서부터 조성된 조경의 품격은 친환경적인 단아한 아름다움을 라운드 내내 즐길 수 있도록 늘 새롭게 단장하고 있다.

평소에는 주말 골퍼들이 선호하는 아기자기한 코스이지만 토너먼트 기간에는 전혀 다른 난도로 변신하는 이중적 얼굴을 하고 있다. 2019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 2020년 제39회 GS칼텍스 매경오픈이 열렸다.

●천혜의 자연과 공존하는 개성 코스

힐 코스는 페어웨이가 넓어 편안함과 안정감을 준다. 해발 260m의 능선 코스에서 내려다보면 확 트인 전경에 가슴까지 시원해진다. 검봉산(529.6m)과 유유히 흐르는 북한강, 강 건너 삼악산(655.8m)이 한눈에 들어온다. 천혜의 비경으로 여름에는 '피서 골프'를 즐길 수 있다.

코스는 짧은 편이지만 오르막 홀이 대부분이고, 벙커가 많고 그린 언듈레이션이 심해 파 기록이 쉽지 않다. 5번 홀(파4, 400m)은 왼쪽 도그레그이고 그린은 가로 타원형 돼지 등을 닮아 버디가 나오지 않는 홀로 악명이 높다. 난도가 높으면서도 서울경제골프매거진이 선정한 '가장 아름다운 홀'이기도 하다.

밸리 코스는 자연 그대로의 울창한 숲을 간직한 조형미가 뛰어나다. 3개 코스 중 가장 낮은 분지에 조성돼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북한강과 인접해 있다. 홀마다 정교한 해저드 배치로 다양하고 변화무쌍하게 설계되어 있다. 이는 정교함과 신중한 전략 샷이 요구되는 코스공략을 필요로 한다. 파3 홀이 어렵게 세팅되어 있다. 2번 홀(파3, 153m)은 연못을 건너는 홀로서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 봄에는 붉은 영산홍, 가을에는 코발트색 하늘과 붉은 단풍이 연못을 채색한다.

6번 홀(파5, 455m)은 장타자라면 투 온을 노려볼 만하지만 과욕을 부리면 호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멀리 보이는 삼각 봉우리를 바라보며 티샷을 날린 뒤 호수를 넘기는 드라마틱하고 도전적인 홀로 이 골프장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홀이다. 최근 새로 단장한 7번 홀(파3, 130m)은 호수를 가로질러 쳐야 하기 때문에 해저드 부담이 큰 '악동의 선물'과도 같은 홀이다.

레이크 코스는 아담한 코스와 폭포가 어우러져 낭만적이다. 페어웨이가 평지로 조성된 곳이지만 실제로는 결코 쉽지 않다. 파3, 파4, 파5 홀이 3개씩 구성돼 있다. 다시 말해 파4 홀이 2개가 없고 대신 파3홀과 파5홀을 하나씩 더 늘린 것이다.

6번 홀(파5, 456m)은 토너먼트에서는 승부처 홀로 악명이 높다. 티샷과 세컨드 샷의 거리와 정확성, 그린 공략에서 치밀한 전략을 요구하는 홀이다. 그린 앞에 커다란 호수와 실개천 이 미스 샷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계절 아름다운 정원형 리조트

골퍼들은 엘리시안 강촌CC를 골프코스 이외에도 휴양 정원으로서 높은 평가를 한다. 골프장에서 바라보는 리조트의 풍광은 계절마다 감동을 선사한다. 봄에는 매화를 시작으로 개나리와 진달래, 목련, 라일락, 꽃 잔디가 계절에 흐름에 따라 피고 진다.

여름에는 콘도 앞 꽃가람 폭포에서 쏟아져 내리는 시원한 물줄기가 싱그러운 여름을 선사한다. 골프를 마치고 짙은 녹음사이에 만들어진 수영장에서 가족과 함께 동심으로 돌아가 물장구를 칠 수 있는 곳이다.

가을에는 울긋불긋 오색 단풍이 코스를 붉게 물들기 시작하면 단풍나무와 은행나무, 전나무, 낙엽송 같은 침엽수가 산에도 연못에도 가을을 그려낸다.

초가을인데도 벌써 설원(雪原)을 달리는 스키어들의 신나는 질주가 눈에 보이는 듯하다. 엘리시안강촌 스키장은 다양한 길이와 경사도의 슬로프를 갖추고 있어 스키 실력에 맞게 맘껏 즐길 수 있는 겨울철의 핫 플레이스이기도 하다.

골프칼럼니스트·대한골프전문인협회 이사장
26567088@naver.com

세계 골프계 '핫이슈' 김주형

PGA투어, 오늘 더CJ컵 출전 앞두고 집중 조명
조던 스피스는 "호기심 많고 좋은 친구" 극찬



김주형

미국프로골프투어(PGA)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김주형(20·CJ대한통운)에 대한 미국 골프계의 관심이 뜨겁다.

김주형은 20일(한국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리질랜드의 콩가리골프클럽(파71)에서 열리는 더CJ컵(총상금 1050만 달러)에서 디펜딩 챔피언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리키 파울러(미국)와 한 조에서 만난다.

PGA 투어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김주형의 기록을 집중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김주형은 최근 두 달 동안 2승을 몰아치며 그야말로 세계 골프계의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8월 윈덤 챔피언십에서 PGA 투어 첫 승을 올린 김주형은 이달 초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에서 우승하며 두 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두 번의 우승 덕에 그의 '신분'은 상전벽해를 이뤘다. 1년 전까지만 해도 149위였던 세계 랭킹은 현재 15위까지 치솟았다.

PGA 투어는 "김주형의 2승은 PGA 투어 사상 두 번째 최연소 기록(20세 3개월)"이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20세 2개월에 2승을 거둔 랠프 걸달(미국)의 무려 90년 전(1932년) 기록이다. 김주형이 갈아 치운 기존 2위 기록은 진 사라젠(미국)이 1922년에 세운 20세 4개월이었다.

김주형의 '최연소 기록'은 여전히 행진 중이다. 김주형이 만 21세가 되기 전에 1승을 추가한다면 1929년 호턴 스미스(미국) 이후 93년 만의 기록이 탄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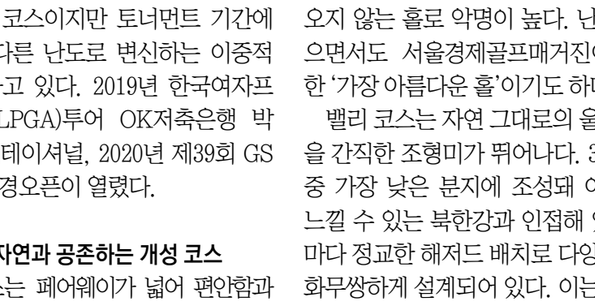
PGA 투어는 김주형의 비거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주형은 자신이 우승한 두 번의 대회에서 컷을 통과한 선수들 가운데 평균 비거리 70위 미만이었다는 것. PGA 투어는 평균 비거리가 상위 70위 안에 들지 못하고도 3타 차 이상으로 우승한 사례는 최근 30년 간 12번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김주형이 장타자가 아님에도 우승한 점에 주목했다.

스타플레이어 조던 스피스(미국)도 김주형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더CJ컵을 하루 앞둔 19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호기심이 많고 발전하기 위해 질문을 많이 한다. 그 나이였을 때 나에게는 아쉬웠던 부분"이라며 "김주형은 정말 좋은 선수"라고 치켜 올렸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집업 티셔츠로 차가운 날씨에도 든든하게
기능성 집업티셔츠 3장 49,800원



100% 국내산 안감 기술을 사용해
부드러운 착용감과 보온성이 탁월

버건디 차콜 네이비 청담 블랙

방풍성 · 실용성 · 패션성을 겸비한 집업 티셔츠는 차가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안성맞춤이다. 보온성이 있는 원단의 집업 티셔츠는 가을철 일상생활이나 등산 · 낚시 · 골프 · 사이클 · 스포츠 레저 활동 시 적합한 제품으로 입는 순간부터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온몸으로 느낄 것이다. 일상복 및 외출복으로 손색이 없으며 가을철 냉기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시켜 준다. 100% 국내 원단으로 믿고 입을 수 있다.

사이즈 95, 100, 105, 110 **3장 ₩49,800** (택배비 3,000원 구매자 부담)
www.**style49**.com **입금계좌** : 농협 302-1316-9132-11
예금주 : 이선희썬스포츠 **전국주문전화** : **1588-4930** **※카드결제 가능**

바지가 편해야 하루가 편하다! 기모 원단 장착!
클래식 동계용 기모바지 2장 39,800원



"우수한 신축성으로 편안하고 허리 밴딩으로 숨쉬기 편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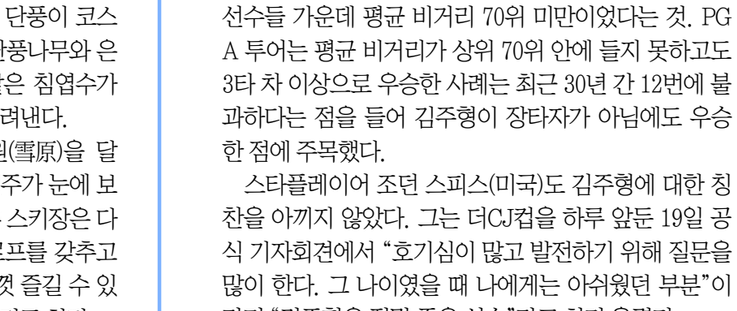
검정 곤색 차콜

사이즈
30, 32, 34, 36, 38, 40
바지 2장 ₩39,800
(택배비 3,000원 구매자 부담)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겨울 의류는 기모 처리된 바지 종류가 단연 인기이다. 일반 바지보다 보온기능이 우수하고 두껍지 않아 움직임이 많은 성인 남성들이 선호하는 겨울 상품 중 하나이다. 클래식 원턱 스트레치 기모 바지는 보온은 물론 흡한, 속건, 항균, 소취를 갖춘 바지이다. 뿐만 아니라 스판 소재로 정장용, 레저용으로 모두 입을 수 있게 디자인되어 일반 바지보다 활동성이 뛰어나다. 허리 부분에 4cm 가량 늘어나는 숨 쉬는 바지 기능을 추가하여 30~70대 남성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세균과 땀 냄새까지 억제하며 한겨울 추위와 싸우며 일하시는 분, 등산, 낚시, 골프 등 야외 스포츠 및 정장 스타일로 남성분들에게는 더욱더 안성맞춤인 바지이다.

www.**style49**.com **입금계좌** : 농협 302-1316-9132-11
예금주 : 이선희썬스포츠 **전국주문전화** : **1588-4930** **※카드결제 가능**

입은 듯 안입은 듯 고밀도 압축기술의 집약체!
퍼펙트 누빔 기모자켓 2장 49,800원



지금 부터 한겨울까지 실용성은 물론 스타일까지
두루 겸비한 상남자의 누빔 기모자켓!

밀리터리 카키 차콜 네이비 블랙

2022년 최신트렌드 누빔 기모 자켓은 겨울에는 두꺼운 점퍼 안에 입지만 간절기에는 점퍼대용으로 많이 입는다. 입은 듯 안입은 듯 매우 가벼운 무게와 부드러운 촉감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누빔 처리된 세련미와 견고하고 깔끔한 지퍼 처리는 여느 브랜드와 비교해도 과연 으뜸일 것이다. 코디 쉽고 보온력 우수 찬바람은 막아주며, 어떤 하의와의 코디도 완벽하게 연출하는 퀼팅점퍼를 착용해 조석으로의 기온차를 극복해보자.

사이즈 95, 100, 105, 110 **2장 ₩49,800** (택배비 3,000원 구매자 부담)
www.**style49**.com **입금계좌** : 농협 302-1316-9132-11
예금주 : 이선희썬스포츠 **전국주문전화** : **1588-4930** **※카드결제 가능**